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COI란?	COI는 IETF(국제기구)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COI	G700:RA106+01400351-01400351:20090717:01400351.2009071710002223628:1	제호	13239		
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4

[강순욱]공연단체 선정 논란, 문화재단 설립에 ‘약’되길

[기자수첩]강순욱 문화.교육팀

[대전=중도일보] 선정된 공연예술단체의 연습실과 사무실 보유 여부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됐던 대전시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선정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시가 제시한 ‘연습실과 사무실 보유’ 조건에 선정된 단체가 적합한지가 논란의 핵심이었고 사실관계를 조사했던 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강순욱 문화.교육팀

어찌됐건 보름 여 동안 지속됐던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졌던 아쉬움은 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논란의 이유를 단정할 순 없지만 지역 연극계에서 힘을 보태도 시원찮을 인사들 끼리 언성을 높이고 또 진정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아쉬운 진실게임이 계속됐던 것만은 사실이다.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분쟁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지역 공연예술계의 척박한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출범을 목전에 둔 ‘문화재단’이다.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에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향후 문화재단 운영 과정 역시 이런 논란에 노출되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에서 집행되던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탓인지 이번 논란에 대한 시의 대응은 그리 유연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줬고, 그로 인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연극인들 간 갈등이 표면으로 불거져 담이 되고 말았다.

중앙이 아닌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서러운 것이 지역 예술계고 크고 작은 지원에 성이 안차는 것도 지역예술계다.

진정성 있는 문화재단이 되려면 이들이 더 이상 '지원'이라는 명제 앞에서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강순욱 기자 ksw@

기여자	강순욱 기자	제작일	2009-07-17	등록자	중도일보
저작권자 역할	언론사	기여자 ID	romero777	컨텐츠 유형	TEXT
저작권 정책?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 저작물 로써 사전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 없이 딥링크 방식이나, 프레임 방식 등 무단 게재를 허용치 않습니다.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뉴스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언론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dnc.kpf.or.kr/d1.htm) 연락처 : (02) 2001-7859				